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1

“우리도 함께 뛰다”

동계체전 광주 10위·전남 8위

어제 폐막...전북 김고은 대회 첫 6관왕

검객들 ‘체전 2연패’ 결의의 레이스

■ 광주시 검도회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재현하기 위하여!” 북구청(감독 오치삼)·조선대(감독 김현준)·서석중(감독 이강산)·고등학교(감독 정동진)·설월여고(감독 이진영) 등 광주를 대표하는 검객들이 새 봄을 여는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올 전국체전 종합우승 결의를 다지는 레이스를 펼친다.

팀워크 다지는 데 목표

광주검도는 지난 2007년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금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2년 동안 겨울잠을 자던 광주검도는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우승을 일구며 옛 영광을 재현했다. 올 해는 지난 2007년 선배들이 이뤘던 영광 재현과 대회 2연패의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최용훈 광주시검도협회장의 과격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정동진 협회 전무이사 주축으로 선수단이 뿔뿔 뿜어 내는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들이 매년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것은 동계훈련 기간



광주시 검도회 선수들이 3·1절 마라톤을 통해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각오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안 서석고, 조선대, 북구청이 합동훈련을 하는데다 새봄을 맞으면서 참가하는 마라톤대회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훌륭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동진 협회전무이사는 “매년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열리는 시점이 동계훈련의 마무리 기간으로 그동안 다졌던 체력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선수들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한 해를 여는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어 이제 광주검도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무장 계기...전통 자리잡아 이들 검객들은 매일 러닝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프나 풀코스를 뛸 수 있지만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팀워크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다 춘계대회를 앞두고 혹사라도 있을 지 모를 부상을 우려해 5km에만 출전해 컨디션을 조절한다. 광주검도가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초등부터 일반부까지 진영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연계 육성이 가능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 합동훈련을 통해 지도자들이 선수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다 선배들과 함께 대련을 통해 고급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전국어느 팀도 갖지 못한 광주검도만의 강점이다. 올 해 광주검도 스타선수로 꼽히는 서석고 박해근(3년)과 여고부 정선아(3년)는 “이날 동계훈련동안 다져온 체력을 점검하면서 올 대회에 출전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고은>

국내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가 경기도의 10연패로 나흘 열전의 막을 내렸다. 전남은 대회 마지막날인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초등 계주 8km와 남자 일반부 계주 40km에서 동메달을 각각 추가하며 전체 순위 8위(274점·금 3·은 2·동3)를 기록했다. 광주는 205.5점(금 1)으로 전체순위 10위에 머물렀다. 경기도는 대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금메달 84개, 은메달 79개, 동메달 74개를 따내면서 종합점수 1320점을 기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2002년 서울의 패권을 무너뜨리며 시작한 동계체전 연패(連覇)행진을 무려 10회로 늘렸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강원도는 종합점수 1041.5점을 쌓아 강력한 라이벌인 서울(908.5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전북(824점)·부산(485점)·대구(379.5점)·경북(296.5점)·전남(274점)·충북(221.5점)·광주(205.5점)·인천(199점)·충남(122점)·대전(106점)·경남(81점)·울산(79점) 순이다. 동계체전 최우수선수로보는 여자 일반부 알파인 스키에서 슈퍼

대회전과 대회전, 회전, 복합을 석권해 4관왕에 오른 김선주(26·경기도 스키협회)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6관왕 1명, 4관왕 5명, 3관왕 18명, 2관왕 45명 등 다관왕 69명이 배출됐다. 김고은(12·전북 안성초)은 여자 초등부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금메달을 무려 6개나 따내면서 역대 동계체전 최다관왕이 됐다. 한국기록은 한 차례도 경신되지 않은 가운데 대회 신기록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3개, 쇼트트랙에서 3개 나왔다. 스피드 빙상의 베테랑 이규혁(33·서울시청)은 남자 일반부 500m와 1000m에서, 여자 스피드의 간판 이상화(22·한국체대)는 여자 대학부 500m에서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연합뉴스

장애인 동계체전 광주 9위·전남 12위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막을 내린 18일 광주는 9위, 전남은 12위의 성적으로 열전을 마쳤다. 이번 대회에 3개 종목(빙상·컬링·스키), 35명이 출전한 광주시 선수단은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 종합점수 3982점을 획득했다. 광주는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이지만 이번 대회 빙상에서 한성주(지적 성인부 500m·1000m)와 이진기(지체 OPEN 500m·1000m)가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각각 다관왕에 올라 빙상 종목 전체 3위를 견인했다. 한성주는 이번 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대

회 4연패의 기염을 토했다. 역대 대회에서 만난 2인자에 머물던 이진기(44)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2관왕을 차지하며 선수단에 값진 금메달을 안겼다. 전남 선수단은 같은 3개 종목에 42명의 선수단이 참가, 빙상에서만 7개(은 2·동 5)의 메달을 거둬들이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2226점으로 종합성적 12위를 차지한 전남은 황진아(청각 성인부 1500m)와 유승협(지적 성인부 500m)이 각각 은메달을, 지난해에 이어 이슬기(청각 성인부 1500m)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희망의 질주

■ 고흥 우주마라톤클럽

“우리가 달리는 레이스는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염원하는 희망의 질주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마라톤클럽은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할 것을 다짐했다. 3·1절 마라톤대회 참가를 앞두고 고흥 우주마라톤 클럽 회원들도 어느 클럽 못지 않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로 우주센터 홍보

다소 풀린 날씨에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훈련코스를 선정, 벌써 체력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목표는 참가인원 전원이 사고없이 완주하고 고흥의 자랑 나로우주센터를 알리는 것. 우주마라톤클럽은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선수 중 12명이 풀코스(250km)에 참가할 정도로 마라톤 고수들이 포진해 있는 클럽이다. 특히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대근씨는 SUB-3(3시간 내 풀코스 완주) 7회를



고흥 우주마라톤클럽 회원들이 3·1절 마라톤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달성한 존속이다. 또 강동필 고문은 올해 62세가 됐지만 풀코스 70회 완주를 기록한 철인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회원들이 풀코스 50회 이상을 완주한 마라톤 베테랑들로 이뤄져 있다. 회원 대부분 풀코스 베테랑 클럽의 자랑인 김순호(66) 고문은 오는 4월 초 모로코 사하라 마라톤대회(250km)를 앞두고 있다. 일반 마라톤의 5배가

넘는 길이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단 2명만 참가하는 데 김 고문은 그중 한 명이다. 전체 회원은 52명. 큰 규모는 아니지만 우주마라톤클럽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회째 고흥우주마라톤대회를 주관해 오면서 고흥을 알리고, 지역의 마라톤 인구 저변 확대 및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황인근 회장은 “올해는 구제역 여파로 인해 다수의 광주와 전남지역 마라톤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다행히 3·1절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돼 기쁘다”며 “이번 대회는 우리 마라톤 클럽이 참가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첫 대회인 만큼 회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첫 대회인 만큼 나로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클럽을 알리는 등의 의미 있는 대회로 기억하기 위해 있는 힘껏 더 열심히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마오, 연아 따라하기?

트리플 악셀보다 3회전 연속점프 집중연습

오늘부터 4대륙 선수권

‘피겨여왕’ 김연아(21·고려대)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일본 피겨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아사다 마오(21)가 ‘김연아 따라하기’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호치와 산케이스포츠 등 일본 언론은 아사다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19~20일 열

리는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여자싱글 경기를 앞두고 17일 치른 첫 공식 연습에서 트리플 플립-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연속 3회전) 점프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아사다는 그동안 ‘주특기’인 트리플 악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코치를 바꾸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연속 3회전 점프에는 좀처럼 도전하지 않았다. ISU가 올 시즌을 앞두고 고난도 점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체점 규정을 손질하면서

아사다는 여전히 트리플 악셀에 애착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균형이 무너지면서 좀처럼 깨끗한 점프를 선보이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일본선수권대회에서 모처럼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성공했다. 내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와 1년 만에 맞대결을 벌이는 아사다가 마지막 점프 기회인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경쟁자의 주특기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일본 언론은 “2009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댄스 이후 시도하지 않았던 연속 3회전 점프를 아사다가 2년 만에 꺼내 들었다”고 전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아사다는 현재 프로그램보다 기본점인 3.3점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다. 아사다가 가르치는 사토 노부오(68) 코치는 “아직 두 번째 점프는 회전이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공동선두 9명 ‘대혼전’

PGA 노던트러스트 1R...최경주 선두와 3타차 26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 오픈 첫날부터 공동 선두만 9명이 나오는 등 혼전이 펼쳐졌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비에라 골프장(파71·729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존 샌든(호주), 빌 하스(미국) 등 9명이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와 4타차밖에 나지 않는 이븐파(71타)를 친 선수도 무려 68명에 이르러 남은 라운드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한국 선수 중에는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와 최경주(41·SK텔레콤·사진)가 1언더파 70타로 공동 26위에 자리하며 선두 추격에 나섰다. 최경주는 1번홀부터 3개를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상승세를 탔으나 후반 들어 보기 2개를 적어내며 뒷걸음질 쳤다. 올해 처음 미국 무대를 밟은 지난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삼금왕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은 후반에 많은 타수를 잃어 공동 40위(이븐파 71타)에 머물렀다. 양용은(39)과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2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91위로 첫날을 마쳤다. /연합뉴스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두번째 은퇴선언

도로사이클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9·미국)이 ‘두 번째 은퇴’를 선언했다. 18일 BBC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공식적으로 선수생활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사이클연맹에도 최근 자신의 은퇴를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 암스트롱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암 퇴치를 위한 싸움에 전념하고자 은퇴

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1992년 프로 사이클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암스트롱은 1996년 고환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프랑스 도 로열투 사이클대회)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사이클 스타로 자리 매김했다. /연합뉴스